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요한복음 16:1-15)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다. 같은 날이지만 의미있는 날이다. 지나간 한해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고 올해를 두고 다시 한번 언약 잡기 바란다. 원단메세지, 나의 24시, 그러면 교회의 24는 어떻게, 현장의 24는 어떻게 하느냐는 메시지 받았다. 개인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실현되는 축복의 한해가 되기 바란다. 교회는 교회 24를 지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성취해야 한다. 우리 중직자들은 70인 중직자 되어야 하고 렘넌트는 미국 남미 뿐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 경제와 기타등등 모든 현장이 살아나야 한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때마다 항상 언약을 잡고 새출발을 해야 한다. 그러면 흑암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항상 새출발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우리는 인생을 광야에 비유한다. 광야는 일단 쉬운 곳이 아니다. 때로는 위기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광야에서 답이 있었다. 답만 있으면 괜찮다. 문제 와도 괜찮고 위기와도 괜찮다. 우리는 이 답을 가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이 답이다. 모세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 없었다. 절대 신경 안 썼다. 문제에 잡힌 적이 없고 백성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 신경 안 썻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했고 항상 가나안 언약 잡았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이 언약 잡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올해는 우리도 이렇게 되기 바란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이 길이다. 언약을 딱 잡고 세상과 사람과 일어난 일에 신경쓰지 말고 기도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수가 없다. 그냥 그리스도를 영접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기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언약잡으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기도를 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도하여 응답 받고 시작하는 말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실 이런 기도 없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가 언약 중심, 기도 중심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조금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보다 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

1. 하나님의 일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설명한 책이기도 하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고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말로 요약하면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이다. 그의 죽으심과 피흘리심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건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이 최종목표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 사도를 세우고 양육을 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을 계속 해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같이 살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셨다. 말씀과 기적으로 계속 보여줬다. 이것이 양육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전달되어도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양육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여기에 답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저주에서 해방이야, 사단의 머리 박살이야, 24시간 하나님 누리는 길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것이 양육이다. 예수님이 열두제자를 택하시고 이거했다. 70인 제자도 세웠다. 우리도 이에 따라 중직자 세웠다. 렘넌트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도 주일학교도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한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을 왜 하냐면 최종적인 목표, 구원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세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성령님이다. 예수님 가시면 대신 오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죄에 대해 책망하는데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이다. 원죄 이전에는 무엇이 죄인가? 죄를 짓는 것이 죄이다. 원죄 이후에는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버렸다. 이제는 죄 지어봐야 이미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나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다.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을 받을수 있는 길을 열어 놨는데, 그것을 안 믿는 것이 죄이다. 원죄 이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죄이다. 지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한다. 그게 죄이다. 원죄 이전에는 안 먹는게 죄인데 하나님뜻을 거스려 먹었다. 죄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죄라는 뜻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책망할 것이라고 첫 번째로 말했다.

두 번째 10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했다. 세상에는 의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다. 이것이 의롭다 저것이 의롭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다. 율법지키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대하여 의가 뭐냐,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의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면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이유 불문하고 의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것은 제 아무리 자기가 의인이라 해도 의인 아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의 기준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셨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다. 즉 내가 세상의 의라는 선언이다. 어떤 사람도 의는 없다. 오직 내가 의라는 것이다. 세상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성령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고 함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당연히 사단에 대해 하는 말이다. 원죄보다 더 근본적인게 사단이다. 이것을 죽여야 해결되는데, 그래서 이걸 죽이러 오셨다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을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수 있는 근본 언약을 완성하러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성령님하고 임무교대를 하셨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것을 가지고 알리신다고 하셨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다. 예수님 영광의 핵심은 십자가이다. 그 이외에도 많은 영광이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영광이다. 많이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 내것이라는 것은 언약이라고 말할수 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렇다고 가르쳐줄거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러 성령님이 오셨다. 그리고 15절은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한다. 세상에 이 일을 전달해서 그들이 책망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 책망에서 나와야 한다. 간단하다. 첫째는 예수님 믿으면 이 책망에서 나온다. 영접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그리스도 누리고 흑암꺾고 정복하면 더 좋다.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 믿으면 의인된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의가 없다는 것을 언약으로 잡고 누려야 한다. 이 길 말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인간은 절대 무조건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가능하고 영원히 가하다. 완벽하다 한번으로 끝이다. 사단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다. 세상은 사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단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죽이러 아들 보냈다고 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깬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이 사단은 너무나 심각한 것인데 세상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단과 논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것을 책망하러 오셨다. 너 틀렸다. 계속 가면 영원히 죽어. 이거다. 우리는 여기서 나와야 하고 정복해야 한다. 그 답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 뭔가?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간단한 것이다. 다 아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다.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데 이것을 하러 성령님이,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눈이 열려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다. 믿음은 전부이고 시작이다. 이 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인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만나야 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뿐 아니라 24시간 여기서도 만나야 한다. 그러면 내가 의인되어야 한다. 내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감이라고 하셨다. 의인 아닌데 하나님께로 가지는가? 도무지 불가능이고 영원히 불가능이다. 안된다. 외쳐도 안되고 도저히 안된다. 믿음으로만 된다. 그리고 사단 죽여야 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원죄의 원인이 사단이라면 말 다 한 것 아닌가? 죄짓기 전에 이미 있었다. 원죄 이전에. 이것을 죽이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한다.

아침에 임마누엘부산교회 보니까 본문이 마태복음 4장이었다. 그 말씀에 공생애 시작 전에 먼저 사단을 꺾었다고 하셨다. 그것 때문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한 것이다. 사단을 꺾기 위해서 40일 금식이 필요한게 아니고 공생애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는데 먼저 사단을 꺾은 것이다. 원인이 사단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 올해 뿐 아니라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한다. 성령님이 오신 세가지 이유중에 이것을 하지 않는 세가지를 책망하러 왔다. 성령님이 오셔서 했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죄문제 해결해야 되고 의인 되어야 하고 사단 꺾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으로 끝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러 오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면 무엇이 끝인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과정이 이 세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해져 가는 과정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과정이다.

2. 지교회 중직자 렘넌트

올해 우리가 잡은 단어들이다. 이 세가지 단어는 성령님이 하시는 세가지 일을 하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이다. 세상이 성령님의 책망을 벗어나게 하는 전략 20가지 중에 우리가 잡은 것들이다.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가지 책망을 전달하고 70인 중직자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이래야 한다.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잘 준비가 되어져서 이 일을 땅끝까지 전달할수 있도록 키워져야 한다. 그리고 후대에게 계속 이것을 전달해 나가야 한다.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생하고 이 땅에서도 24시간 하나님을 누릴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도 자꾸 이야기 해서 눈이 열려야 한다. 우리 보통 복음 메시지를 처음 듣는 분중에는 왜 이렇게 사단 이야기를 많이 하나 하는 분이 있다. 어떤 분은 귀신 이야기 많이 해서 가버리시는 분도 있다. 아직 눈이 덜 열려서 그렇다. 눈이 진짜 열리면 매일 그 이야기만 해주라고 한다. 사단이 원인이기 때문에. 사단을 깨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원죄의 원인이 사단인데, 이것 해야지 뭐 해야 하는가? 이 눈이 열리면 더 그리스도에게 열리고 더 오직이 되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저주에 빠져서 이유도 모른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말하는 사람 많다. 옆집 사는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모지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보다 잘 살고 나는 왜 문제에 깨지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싸인이다.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회복되어가면 이유를 발견하고 응답받는 것이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달해야 한다.

1월 11차 자체캠프 기간이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보다는 환경이 훨씬 좋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올해 우리가 잡아야 할 언약을 잡기 바란다.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100지교회, 남미의 100팀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단어들도 있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가 그렇다. 이것 할려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어떻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면 자동으로 오는게 보좌의 축복이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역이 깊어진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나 뿐인 그런 기도세계는 좀 좁다. 보좌의 축복과 비교하면.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없이 보좌의 축복을 바로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봐라. 불가능하다. 류목사님이 살아온 세월을 잘 봐야 한다. 사도바울이 살아온 인생을 잘 봐야 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써놨다. 이런 것을 참고하고 나는 어디쯤 있는가를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 생각은 보좌의 축복, 보좌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 내 목표지만 출발은 어디에서 부터해야 하는가가 나와야 한다. 거기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모든 사람이 5달란트가 아니다. 나는 2달란트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똑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각각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눈을 가지고 오늘 언약으로 잡을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뱀의 머리는 반드시 박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천국에서뿐 아니라 24시간 하나님 누리는 길이야. 언약으로 잡고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고백하는 것이다. 중요하다. 매일 고백하고 잘 안되면, 고백해도 은혜가 안돼? 쓰는 것이다 꼭꼭 마음에 심는 방법 쓰는 것이다. 심지어는 볼펜으로도 쓰지 말고 연필로 쓰지 말라는 것이다. 여하튼 하나님 주신 답은 그리스도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것을 하신다고 하였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시는데 우리가 두말할 것 있는가? 이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발견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